

# 천하무적 '바르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7일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벤투스와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3-1 승리를 거둔 뒤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 UEFA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 3-1 꺾고 우승

### 팀 통산 두 번째 트레블 대기록

‘스페인 거함’ FC바르셀로나가 ‘이탈리아 자존심’ 유벤투스를 제물로 삼아 통산 5번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트레블’(정규리그·FA컵·챔스리그 동반 우승) 달성의 영광까지 맛봤다.

바르셀로나는 7일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반 라키티치-루이스 수아레스-네이마르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알바로 모라타가 한 골을 만회한 유벤투스를 3-1로 물리쳤다.

이날 승리로 바르셀로나는 2010-2011 시즌 이후 4년 만에 ‘빅 이어’(우승 트로피 애칭)의 주인공이 되면서 우승 상금 1050만 유로(약 131억원)를 챙겼다. 통산 다섯 번째(1992·2006·2009·2011·2015년) 정상에 차지한 바르셀로나는 우승 상금과 함께 본선 참가비 860만 유로(106억원)와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누적상금, TV중계권료 등을 합쳐 총 5800만 유로(약 730억원·추정치) 상당의 돈방석에 앉았다.

여기에 이번 시즌 정규리그와 국왕컵을 이미 석권한 바르셀로나는 2008-2009시즌 이후 6년 만에 팀 통산 두 번째 트레블 달성의 대기록을 완성했다.

이번 시즌 무려 120골을 합작한 MSN(리오넬 메시-루이스 수아레스-네이마르) 라인을 가동한 바르셀로나는 전반부터 일방적인 공세를 냈다.

첫 득점은 키오프 4분 만에 나왔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볼을 잡은 네이마르가 페널티지역 안쪽으로 쇄도하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에게 패스했다. 이니에스타는 골지역 정면쪽에 포진한 라키티치에게 볼을 내었고, 라키티치는 논스톱 일발 슈팅으로 유벤투스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움츠리고 있던 유벤투스가 반격의 칼날을 꺼낸 것은 후반 5분. ‘이적생’ 모라타의 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지만 바르셀로나에는 MSN 라인이 건재했다. 후반 23분 메시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부폰의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수아레스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결승골을 꽂았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추가시간 역습 과정에서 승부에 썩기를 막는 네이마르의 마무리골로 유벤투스를 격침하고 통산 5번째 ‘빅 이어’의 주인이 됐다.



## 이제 믿고 본다, 스티슨



주말 롯데전 6.2이닝 6탈삼진 1실점...시즌 5승

싱커·체인지업 등 자유자재...위기관리 능력 더해

KIA 외국인 투수 스티슨의 한국 적응이 끝났다.

스티슨의 뒤늦게 발색조 매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직한 투수가 됐다. 낯설었던 한국 야구에 적응을 하면서 위기 탈출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스티슨의 5승에도 위기탈출 능력이 발휘됐다.

지난 6일 롯데와의 원정경기 선발로 나선 스티슨에게는 마음이 급했던 1회였다. 1사에서 롯데 외국인 선수 아두치에게 우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허용했다. 황재균의 타구도 멀리 뻗어나갔지만 김호령의 좋은 수비로 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4번 타자 최준석과의 승부. 스티슨은 최준석과의 승부를 중견수 플라이로 끝내며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1실점으로 막았던 1회, 남은 이닝을 끌어갈 방법까지 찾았다.

스티슨은 경기가 끝난 뒤 “1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걱정을 했다. 전력으로 던지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1회 승부를 하면서 상대가 싱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략을 바꾼 게 주효했다. 커브 밸런스도 좋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경기에서 스티슨은 꼭 떨어지는 싱커로 땅볼을 유도하며 ‘땅볼 사나이’가 됐다. 이닝 소화력이 늘어난 비결 역시 싱커다. 싱커를 통한 맞춰 잡는 피칭으로 투구수는 줄이고, 위기 탈출 능력도 높였다.

롯데는 스티슨과의 재대결에서 싱커 공략에 공을 들였다.

그 부분을 스티슨이 일찍 간파를 했다.

스티슨은 “최준석과 첫 승부를 하면서 바깥쪽으로 빼고 서는 것을 보면서 상대가 싱커를 노린다는 것을 알았다. 앞서 두 경기를 싱커로 승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커터로 패턴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불안했던 1회를 넘은 스티슨은 이후 커터로 롯데의 방망이를 묶었다. 싱커와 같은 궤적으로 오던 커터가 예상과 달리 흘러나가면서 상대 타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커브로 타 이닝을 뺏으면서 ‘땅볼 사나이’ 스티슨은 6개의 탈삼진도 곁들였다.

이날 스티슨은 최고 151km의 강속구를 바탕으로 커브(121~128km), 체인지업(137~140km), 커터(136~141km), 투심(142~148km)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발색조의 매력을 뽐냈다. 불안했던 피칭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경기를 보는 눈까지 더해졌다. 결과는 2-1, 스티슨의 5승이었다.

육성형 외국인 투수 스티슨이 진화하고 있다.

/사직=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특·특

▲“재미있었어요.” = 엔트리에서 말소된 9년생 막내 투수가 밝힌 1군 등판 소감이었다. 지난 6일 김진우가 1군에 합류를 하면서 3일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고졸 투수 박정수가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엔트리에서는 빠졌지만 7일까지 1군 동행을 하게 된 박정수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박정수는 “(첫 등판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별로 떨리지도 않았다. 1군에서 공을 던진 김겨이 앞으로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화가 나신 것 같아요.” = 슈퍼 수비로 눈길을 끄는 슈퍼루키 김호령이다. 빠른 타구 판단과 넓은 수비 반경을 자랑하는 외야수 김호령의 진가는 지난 주중 두산 원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2일 3회 2사 1·3루에서 좌중간을 가른 김현수의 2루타성 타구를 닦아내며 경기의 흐름을 바꾼 수비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안타를 도둑맞은 김현수까지 감탄하게 만들었던 호수비. 김호령은 “다음날 훈련시간에 김현수 선배님처럼 민병현 선배님이 좋은 수비를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그런데

나중에 또 김현수 선배님의 타구를 잡았는데 경기 영상을 보니 덕아웃에 들어가다가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셨다. 화가 나신 것 같다”며 어쩔 줄 몰라했다.

▲“안타를 치려고 했어요.” = 김주찬은 지난 6일 사직 구장을 가르는 시즌 8호포로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자신의 최다 홈런은 9.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해본 적이 없는 김주찬은 올 시즌 탈라진 파워로 자신의 역대 기록 경신을 노리고 있다. 김주찬은 “홈런을 치겠다는 것보다는 안타를 많이 치려는 생각이다. 웨이트를 열심히 한 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정 때는 속소 웨이트장을 찾고 있다”며 업그레이드된 홈런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마음을 잘 알죠.” = 동병상련이라고 했다. 불펜 투수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스티슨이다. 스티슨은 6일 롯데전에서 6.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2-1,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던 경기. 앞서 불펜진의 난조로 몇 차례 승리를 날리기도 했던 스티슨이었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불펜 투수를 해봤기 때문에 승리를 날렸을 때의 미안함 등을 잘 안다. 다들 이기고 싶은 마음이다. 팀이 이겨서 좋다”고 밝혔다.

▲“사실 적응이 안 돼요.” = 베테랑에게도 낯선 시작이다. 종아리 근육 부상 여파로 지난 6일이 돼서야 처음 1군에 올라온 김진우. 경기장을 오가는 모습에는 여유가 넘었지만 많이 달라진 팀에서의 새 시즌이 긴장이 됐던 김진우다. 1군 합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짓던 김진우는 콧속말로 “사실 적응이 안 돼요”라고 말한 뒤 라커룸으로 향했다. 7일 김병현에 이어 등판한 김진우는 2이닝 1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팀은 2-4로 졌다. /사직=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